

증권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연초에도 업황지표 부진 지속
- 모멘텀 공백 구간
- 국내외 유동성 여건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관건

증시 및 주변자금흐름 점검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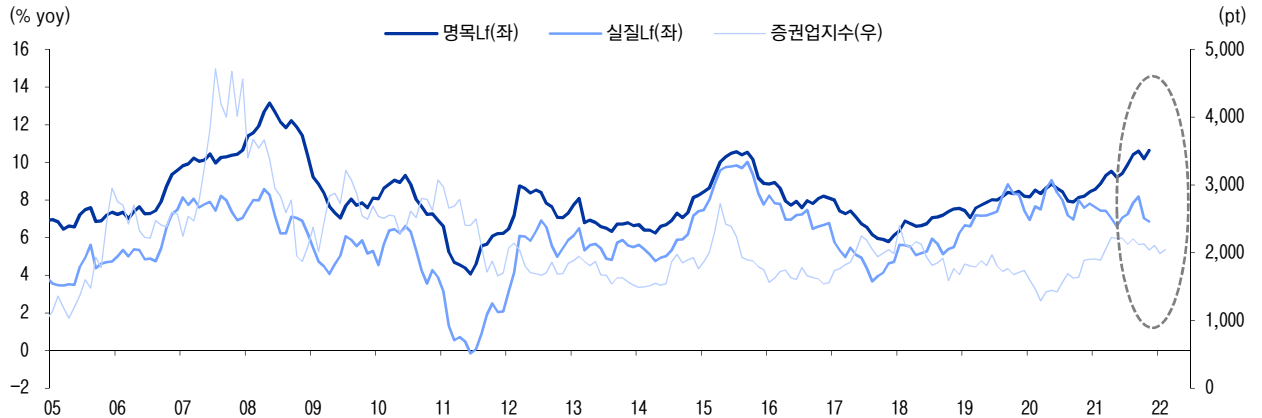
연초에도 업황지표 부진 지속

- ▶ 2022년 1월 일평균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20.7조원으로 2021년 12월의 21.4조원, 지난해 4분기의 22.7조원에 비해 감소하며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2021년 1분기를 정점으로 거래대금 수준은 지속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투자주체중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는 1월 13.8조원까지 감소하며 지난 4분기 15.9조원대비 추가로 낮아짐. 대규모 개인자금의 유입이 있었던 2021년 초에 비해서는 규모가 절반 이하로 낮아진 상황. 개인 투자자의 활성성을 대변하는 코스닥 회전을 역시 1월 중 560%를 기록해 2021년 평균 710%에 비해 크게 하락. 시장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개인자금의 신규유입이 억제되고 활동성 또한 둔화되는 모습이 연초 이후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인의 거래비중이 68%까지 낮아지며 코로나 국면 이후 처음으로 70%를 하회
- ▶ 고객예수금은 1월말 70조원 수준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1월 중 LG에너지솔루션 청약으로 일시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신용잔고 역시 둔화추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 25조원을 기록한 이후 최근 22조원까지 하락. 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증시주변자금의 흐름 또한 정체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모멘텀 공백구간. 국내외 유동성 여건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관건

- ▶ 2~3월 업황지표 반등 여부가 관건이나 증시 및 주변자금 흐름 감안 시 지난 4분기에 이어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 둔화는 2022년 1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자금 차입여건 악화와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대규모 개인자금의 증시 재유입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 신용잔고 평잔 감소세가 이어지고 주요 증권사의 신용공여 여력 또한 크지 않아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이자수익의 동반 정체가 예상됨
- ▶ 연초 이후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운용이익 역시 지난 4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다만 주가 조정으로 증권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게 높아진 상태로 판단하며 국내외 유동성 여건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와 금융시장의 내성이 확인되는 시점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당분간은 모멘텀 공백구간으로 평가

그림1 실질유동성과 증권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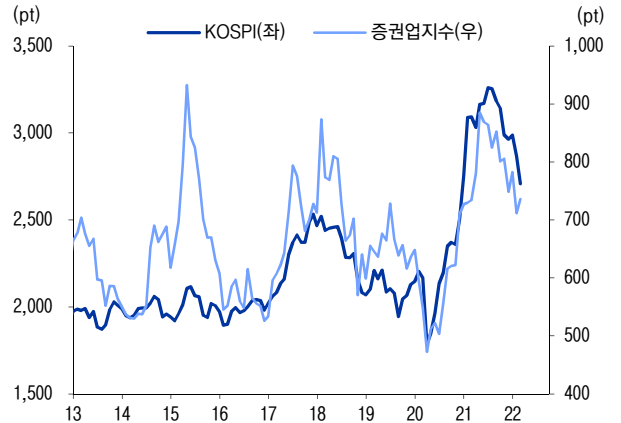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시장금리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KOSPI와 증권업지수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투자주체별 거래대금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고객예수금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신용잔고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1% 6.9%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21. 1. 1 ~ 2021.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